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제35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겸
제3차 지표금리개선 추진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사상 세 번째 팬데믹(pandemic)*으로 선언한지
어느 새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 ['68] 홍콩독감, ['09] 신종플루, ['20.3.11일] 코로나19

드디어 오늘(26일) 우리나라에서
첫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으며,
보건당국은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아직 직장, 가족모임 등 생활 속의
감염사례가 이어지는 등
방역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부디 하루빨리 백신의 효력이 발휘되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경제·금융 동향 및 평가

그간 각국의 적극적 경기부양책과
백신접종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빠른 상승세를 지속해왔습니다.

기업자금조달 시장도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축소* 되고
채권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회사채 AA- 스프레드(민평 국고채 3년물 대비, bp): ('20.1.2.) 42.5 → (6.30.) 72.4
→ (12.31.) 42.2 → ('21.2.25) 32.1

** 일평균 회사채 발행액(공모) : ('20.1분기) 1,820억원 → ('21.1~2월) 2,005억원

우리 경제도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과 가계의 경기지수** 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수출 증가율(전년 동기대비) : ('21.1월) 10.5%, ('21.2.1~2.20.) 16.7%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20.9월) 64 → ('20.12월) 75 → ('21.2월) 76

소비자심리지수(CCSI) : ('20.9월) 81.4 → ('20.12월) 91.2 → ('21.2월) 97.4

다만,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장기 국채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으며*,
중국 등에서 유동성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미국채 10년물 금리(%): ['21.1.4.] 0.92 → [1.29.] 1.06 → **[2.25.] 1.53**

장기금리 상승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최근 각종 자산가격은 물론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향후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금리의 상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가계 및 기업부채의
상환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3. 리보금리 산출중단 대응 및 무위험지표금리(RFR) 선정

[리보금리 산출중단 대응]

글로벌 금융거래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리보금리가 금년말까지 산출되고, 내년 이후에는 산출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 리보 산출기관인 IBA는 일부 USD 리보(익일물, 1·3·6·12개월물)에 대해 '23.6월말
까지 산출을 지속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진행('21.1월)
- 기타 만기 USD리보 및 GBP, JPY, EUR, CHF 리보는 '21년말 산출중단 확실히

우리나라 금융회사 및 기업들도 리보금리 기반의
외화대출, 채권발행, 파생계약을 활발히 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산출중단에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해, 늦어도 금년 4분기 이후로는
리보에 연계된 신규계약의 체결을 중지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금년말 이후에도 만기가 남아있는 리보 연계 계약의 경우,
리보 산출중단시 대체할 금리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작업을
금년 3분기 이전에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표금리개선 추진단」 산하 리보금리 대응TF를 통해
금융업권의 리보중단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보금리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불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대응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금융업권과 기업들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전환에 따른 계약서 변경, 대고객 설명, 내부 시스템 변경 등
필요한 조치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무위험지표금리(RFR) 최종선정]

지표금리 개혁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무위험지표금리, RFR(Risk Free Reference Rate)의 선정작업도
1년 8개월만에 드디어 완료되었습니다.

시장참가자 그룹(MPG)의 토론과 투표를 거쳐,
기초시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파생상품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받은
“국채·통안증권 RP금리”가 RFR로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RFR 개발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주신 한국은행과
MPG 참여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FR은 산출방법론 등에 대한 추가논의를 거쳐
현재 RP금리를 산출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이
이르면 금년 3분기부터 공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번에 선정된 한국 RFR은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현재 널리 활용되는 CD금리를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표금리로서 RFR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어가고 있는만큼,
시장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를 목표로 거래소에 RFR 선물 상장을 추진하는 한편,
RFR의 안정적 산출을 전제로 내년중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RFR 연계 FRN(변동금리부 채권)을 시범 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RFR 사용이 활성화되면, CD 지표물 발행에 대한
이례적 지원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지속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하는 데에
큰 힘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재확산, 거리두기의 장기화 및
경제회복의 지연 등을 고려하여,
지난 22일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금년 9월까지
다시 연장하는 것에 전 금융권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금융당국도, 현재 전 금융권에 적용되고 있는
자본·유동성·영업규제 등의 유연화 조치를 함께 연장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당금 적립 등 보수적인 자본관리 유도*를 지속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 금융위 의결(21.1.27.)

물론, 코로나19 금융지원이 무한정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의 전개방향에 따라
그동안 취해온 금융대응조치들을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방역여건, 실물경기, 금융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상황을 진단(위기단계→회복단계→정상단계)하고,
그에 맞추어 금융대응조치들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진단-대응체계(framework)"를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앞으로의 정상화 방향에 대한 포워드 가이드를 제시하여
시장에서 정책방향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마무리 말씀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정부, 금융회사, 국민들이
함심하여 잘 대처해 왔습시다만,
아직도 함께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넘어서
선도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금융백신”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